

물건을 먼 곳에 두고 찾으려면 찾을 수 없을 것이
다. 부처가 먼 곳에 있다고 또는 따로 있다고 생각
하면 성불하기 어렵게 여겨지지만 자성불이 곧 자
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성불의 가
능성을 가지게 된다. 전라가 먼 데 있다고 생각한
즉, 깨치기가 어렵지만 만약 생활중에 있다고 안다
면 곧 능히 체득하여 깨칠 것이다.

“밀교 진언행자로 부처님 법 실천”

총지중 교도 수명관정수계법회

총지중(총리원장 우승)은 교도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9일에는 서울 총지사에서 서울경인교구, 충청전라교구 교도들에게 11월 25일에는 부산 정각사에서 부산경남교구, 대구경북교구 교도들에게 수명관정수계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총지중은 2년여 전부터 교도 수명관정수계법회를 준비하여 왔으나 록정, 수성 종령의 잇따른 열반으로 인해 본 행사를 치루지 못했으나 효강 종령의 추대 후 종단 내적으로 인정을 기함과 동시에 교세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본 행사를 봉행하게 되었다.

수명관정수계법회는 밀교의 수행자에게 계를 주는 것으로 교도에게 주는 관정을 말하며, 관정은 여래의 다섯가지 지혜를 상징하는 물에 아사리(밀교 스승)가 제자의 머리에 뿌려주는 의식으로 부처님의 지위를 계승시키는 것을 나타낸다.

밀교에 입문하는 자가 불보살과 인연을 맺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을 결연관정, 밀교에 입문한 진언행자가 자기



지난 수명관정수계법회에서 교도들이 불명과 보살계를 수지하고 부처님의 진언행자로서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와 인연이 맞는 불보살의 인계와 명주를 받는 것을 수명관정이라 지칭한다.

총지중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수명관정수계에 있어 종조 법설집에서 “대저 상(賞)이란 훌륭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일반의 개념이요, 원리이

다. 상을 받는 사람은 정직과 성실과 겸손과 양심적인 동시에 다른 이의 귀감이 될 만한 인격과 업적을 갖추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정수계와 불명수여도 신심이 전일하여 삼보를 공순하게 받들고 묵묵히 성실하게 실천할 때 공덕이 드러나고 중생제도에 열성적으로 행동하여 다른 교도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참다운 삶의 의미는 오히려 법과 상에 관계없이 성실과 정의를 살아야 할 것이다. 관정수계와 불명이 남발되면 아무 효과 없고 권위가 없고 선망이 없을 것이다.

관정수계와 불명을 주는 것은 부처님이 주는 것임을 알고 묵묵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서원이 성취되고자 하면 고통스러울 때나 회복할 때에 관계없이 그 정진은 끝이 없을 것이다.”라고 설하셨다.

총지중 종령 효강 대성사는 “수명관정수계는 부처님과 의약이되며 불법에 귀의하는 진실한 불자가 되는 의식임을 인지하고, 수명관정수계를 수지하는 교도들은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업장소멸을 위해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하여 용맹정진을 당한다.”고 말하였다.

이번에 수명관정수계를 받을 총지중 교도는 500여명으로 밀교의 진언행자로서 5계인 보살계와 불명을 수지하여 일상생활에서 부처님의 법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게 된다.

총지캠페인

저출산율과 고령사회

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맬더스는 그의 저서 「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입여성 1인당 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입기간인 15~49세 사이에 평균적으로 낳는 자녀 수)은 1.19명으로 이는 일본의 1.33명, 영국의 1.64명, 프랑스의 1.89명 보다 낮은 OECD국가 중 최저이다.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 2.1명의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산율의 원인은 첫째 자녀 양육비의 부담이다. 특히 양육비중 사교육의 부담이 너무 크다. 둘째 탁아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사회생활을 결혼 후에도 계속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출산을 꺼린다는 점이다. 셋째 결혼이 늦어짐으로 아이를 많이 산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이 있다. 넷째 부부 중심의 생활을 위해 출산을 부부가 스스로 제한한다. 하지만 출산율을 세계최저치로 만드는 결정적인 공로는 그 당시의 정부에 있다. 1971년부터 실시한 산아제한 정책을 위한 정부의 홍보포스터를 보면 “딸 아들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원은 초만원” 그 시대 산아제한 정책이 정착한 국가로 더 강조되었고 이러한 정부시책에 따르지 못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사회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의 지탄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국가가 주도해 나간 것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산아제한 정책이 정착한 국가로 인정받았고 오늘날 우리나라는 저출산율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저출산율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의 고령화를 가속화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출산율로 계산하면 2050년에는 세계최고의 노령화 국가가 되어 노동인구 100명당 65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이는 개인이나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다. 사회의 구성원이 고령화 되면 그 사회의 전반적인 지식기반 또한 노쇠화 되고, 이는 미래를 예측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저하시킨다. 저출산율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다.

죽비소리

비뚤함이 없는 옛적부터 익혀 온 예속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생각이 마음이 얽히고 설킨 잠깐 수그러들다가는 다시 일어나는 것이 마치 하루같이 화살과 같으나 일체의 시간 속에서 가뭄방편과 지혜의 힘을 써서 번뇌를 능히 막고 마음을 보호해야 하느니라.

만일 한가로운 근기없는 이야기로 세월을 헛되이 보낸다면 어찌 마음자리를 깨달아 윤회를 벗어나는 길을 구한다 하겠는가! 다만 뜻과 절개를 굳건히 지니고 자기의 몸을 꾸밈이 게을리 하지 말고 그곳됨을 알았거든 선한 데로 옮겨서 고치고 뒤우치고 부드럽게 만들지니라

『계초심학인문』중에서

서울경인교구지회 자원봉사단 결성 보육원, 독거노인, 노숙자 봉사활동

총지중 서울경인교구지회(회장 김은숙 보살)는 10월 14일 통리원 반야실에서 서울경인교구 신정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단을 결성하여 매달 2~3회 정도 보육원, 독거노인, 노숙자들을 방문, 점심제공과 가사일을 도와 줌으로써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의 새싹과 더불어 부처님의 자비를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서울경인교구 신정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서울경인교구 지회는 우선 각 사원별로 자원봉사자의 희망원을 접수받아 자원봉사가 가능한 분을 대상으로 시정, 구청,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하여 봉사대상자를 선정하고, 경제적, 물적 인 사항은 총지중 사회복지재단의 지원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과 회원들의 상호 연락을 위해 지회 사무실을 상설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자원봉사단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는 차후 봉사활동을 실천한 후 개선점과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마음속으로 주위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어야 하는데도 시간과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봉사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종단차원의 지원으로 자원봉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기쁘지만 무엇보다도 총지중 보살들을 위한 양로원을 시급히 마련하여 노보살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한편 총지중 사회복지재단에서는 서울경인교구 지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인적, 물적지원을 제공하며,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총지중 교도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자원봉사단체를 결성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이 수반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교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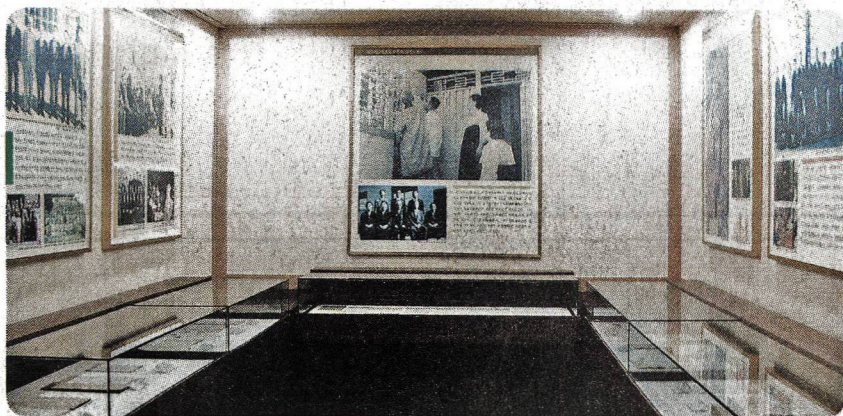
『종조원정기념관』 개관불사 12월 2일, 서울 총지사 2층에서

총지중의 숙원사업인 『종조원정기념관』개관불사가 오는 12월 2일 서울 총지사 2층에 마련된 기념관에서 전국 스승님, 교도, 사부대중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될 예정이다.

『종조원정기념관』은 총지중 창종주인 원정 대성사의 유품과 서적, 불경 등을 전시하여 총지중의 종풍을 진작시키고, 교상과 사상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장소로 그 의미가 크기 때

문에 총지중에서는 이번 『종조원정기념관』개관불사를 통해 일대 도약의 발판을 삼을 것으로 보인다.

『종조원정기념관』은 본관에 영정을 모신 제단이 마련되어 있고, 제단 뒷공간에는 종조님의 유품과 창종 당시의 각종 자료사진, 종조님의 유고(遺稿), 참고문헌, 전시장 중앙에는 창종 초창기 형태의 본존(本尊)과 불단(佛壇)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특히 『법



총지사 2층 원정 종조기념관에 전시된 종조 원정 유품들.

불교」편찬원고 『유지재단 정관 초안』 「한일불교 한국대표 방일보고서」 등이 전시되어 역경작업(譯經作業)과 종단 체제를 확립했던 근거자료가 남아있다. 또한 지금까지 발견되지 못했던 『사중수법용 사색견』 『사중수법용 사색법의 정진결과보고서』 『정진일지』 『원경(圓鏡)』 『준제관음상』 『양계만다라』 『아자(阿字)』와 육합상(六合相) 등 종단의 교상과 사상관련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종조원정기념관』개관불사를 준비하고 있는 관계자는 “종조 원정님께서 총지중의 창종주로서 육자진언과 중제관음으로 교화하여 그동안 불자들에게 생소한 밀교를 포교하여 진언행자로서 당대법문을 통해 당상즉도의 세계를 펼쳐시고 총지중의 사상과 교상을 세우신 분이기에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번 개관불사는 총지중의 종풍과 종지를 확립하고 중생제도를 위해 일대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총지중은 종조 원정님의 사상과 교상을 연구하기 위해 종학연구실을 설립하고,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연구논문을 공모하여 각종 세미나를 준비할 예정이다.

수명관정수계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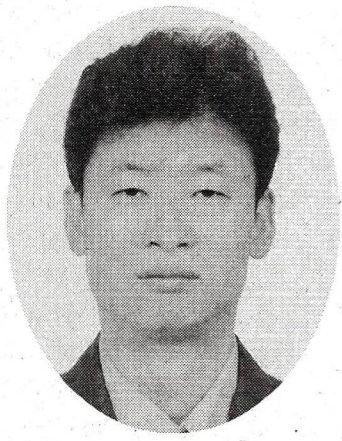
“수명관정수계는 신심(身心)이 전일하여 삼보를 공순하게 받들고 묵묵히 성실하게 실천할 때 공덕이 드러나고 중생제도에 열성적으로 행동하여 다른 교도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며 고통스러울 때나 회복할 때에 관계없이 그 정진은 끝이 없을 것이다.”
총지중의 교도들에게 불명과 수계를 수지하여 진언행자로서의 삶을 증득케하는 수명관정수계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대상자 및 사부대중은 수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총기 33년 11월 19일 14:00 : 서울경기, 충청전라교구
총기 33년 11월 25일 14:00 : 대구경북, 부산경남교구
- 장 소 : 서울 총지사, 부산 정각사
- 연락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전 화 : (02) 552-1080



총지칼럼

불교와 전통문화에 대한 오해



김종인

▲(현) 고려대학교 BK21 연구교수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불교 연구로 철학 석사 (1994)
 ▲스토니브룩 대학교 불교 연구로 철학 박사 (2002)

여타 종교와 달리 초월적 진리의 깨달음을 통한 구원을 추구하는 불교는 방편을 매우 중시한다. 방편은 특히 대중의 구원을 추구하는 대승불교에서 특히 중시된다. 많은 대승 불교 교파들이 방편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본다.

불교 경전들은 다양한 방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방편이란 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근기"라는 말이다. 깨달음의 진리는 영원한 것이지만 그 구체적 실현은 다양한 방편을 통해 이루어지며, 어떠한 방편이

구사되어야 하는가는 중생의 근기에 의해 결정된다.

근기란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문화적 교양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중의 문화적 교양을 결정짓는 것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 환경이다.

중생의 근기에 맞게 설법한다는 것은 대중의 문화적 환경에 맞게 설법한다는 것이다. 대중들이 속해 있는 문화적 환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법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곳이다. 지금의 한국인들은 인류 역사상의 그 어떤 사회 집단보다도 빠른 문화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삼베 적삼에 짚신을 신고 함박밥을 먹고 고고등어를 서러 진흙벌 오일장엘 가는 것이 대다수의 우리 사회 아낙들의 모습이었건만, 이제는 관능적인 품매를 드러내는 외출복을 입고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에 가서 밝은 조명이 비치는 화려한 대리석을 밟으며 구매를 즐기는 것이 많은 여성들의 현실이자 꿈이 되었다.

30년 전만 해도 교사는 존경의 대상이요 권위의 소지자였지만, 이제는 그저 안정된 직장을 가진 노동자일 따름이다. 한국 사회는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문화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변치 않고 구래의 문화적 관습에 안주하고 있는 곳이 바로 불교계이다. 불교계가 사회의 문화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일반론에 대해서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또 불교인들 가운데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있으므로 새삼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많은 불교인들이 사회의 문화적 변화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러기 위해

는 급변하고 있으며, 불교는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데 불교와 관련된 전통 문화에 대한 오해로 불교와 전통 문화를 동일시하는 불교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러한 적응을 방해하고 있다.

불교는 오랜 동안 이 땅의 전통 종교로서의 역할을 해 오면서 자연스럽게 문화 전통과 하나가 되었다. 사찰에서 행해지는 각종 의례, 승려와 신도들의 의복, 사찰의 건물 양식, 음식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한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한 문화적 현상 가운데는 이제 더 이상 사회의 일반적인 문화현상과 융합되기 어려운 것도 있다. 그런만치 당연히 고쳐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교 고유의 것이라고 여겨 고쳐져고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불교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래 왔다는 이유로 모든 경을 한자로 읽고 있다. 『반야심경』이든 『천수경』이든 지 모두 한자로 읽고 있다. 대부분의 신도들은 의미도 모른채 그것을 따라 읽는다. 한글세대가 사회의 핵심 구성원이 된 지 가 오래 됐지만 사찰에서는 의례에 사용되는 모든 경을 한문경을 사용하고 있다. 기껏한다는 것이 한자 맞아 한글 음을 단 의례집을 나누어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 모든 법당은 입석이 아니라 좌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생활양식은 이제 모두 입식으로 되어 있다. 가정에서의 생활도 그렇고, 학교에서의 생활도 그렇고, 회사에서의 생활도 그렇다. 다만 일부 가정에서만 안방에서만 안방다리를 하고 있을 뿐이다.

그 외에는 어디에서든 사찰의 법당에서 처럼 양반다리를 하고 있는 곳이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양반다리를 해 보지 않은 젊은 사람들은 법당에 앉아 있는 것조차 고스럽다. 다리의 고 통 때문이라도 젊은 사람들은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불교 의례에 동참하기 힘든 것이다.

승려와 신도와의 관계 또한 현대사회의 기본적인 인간관계인 인격적 평등의 법칙과 크게 다르다. 대통령과 국민, 회사 사장과 근로자, 나아가서는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조차 인격적 평등을 기초로 설정되고 있지만, 불교 승려와 신도와의 관계는 인격적 불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많은 승려들이 신도들에게 삼배를 받는 등 전근대적 허위의를 가지고 신도들을 대하고 있다. 승려들이 신도들의 정신적 스승인 것은 분명하지만 인격적 지배자는 아니다.

그런데 불교와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전통적인 요소들을 사실은 불교 교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만 우리의 문화의 전통적 요소일 뿐이다. 게다가 오늘날 사회 일반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불교계에만 남아 있는 문화적 요소일 뿐이다. 불교계 내부에는 이처럼 더 이상 사회 일반에서는 사라진 많은 문화적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불교를 개혁하여 새로운 시대의 대중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방편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무리 전통적으로 해 오던 것들이라 불교의 기본 교리와 관련이 없는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오늘날의 사회 일반의 문화 양식에 맞는 문화들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대승불교의 방편의 정신을 살리는 것일 것이다.

한국사회는 빠른 문화적 변화를 경험 사회문화현상에 적합한 교화방편 개발

서는 불교의 어떤 점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점이다. 불교인들이 이처럼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쉽게 갈피를 못 잡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다. 선불교의 고립적인 산중생활, 현대 교육의 부재, 반불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지배 세력에 대한 피해의식, 교단의 지도력 부재 등들이 모두 그 요인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중 교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방편과 관련하여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불교의 전통 문화에 대한 불교인들의 오해이다. 사회의 문

화 기존의 문화 전통과 융합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것이 없다. 그 결과 그러한 문화 양식들이 원래 불교 교리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교와는 상관 없이 존재하는 문화 전통일 따름인데 불교 역시 이를 받아들인 것인지 구분이 잘 안되는 경우도 많다. 불교 교리 및 사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민족 내부에 있어 온 문화적 현상들조차 불교적인 것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불교가 민족의 전통 문화와 잘 조화를 이루어 온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며, 또 이러한 조화는 불교가 한반도에서 융성

하지 못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며, 또 이러한 조화는 불교가 한반도에서 융성

하지 못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며, 또 이러한 조화는 불교가 한반도에서 융성

이달의 설법문안

반야를 길러라

“교만의 티끌 속에 지혜는 묻혀만 가고 아상·인상·사상 위에서 무명은 자리만 가네. 제 잘난 체 안배우고 세월만 보낸다면 병들어 신음할 때 한탄만 가득하리”

“교만의 티끌 속에 감추어진 반야”

여기서 우리는 반야에 대해 잠깐 공부해 봅시다. 반야가 무엇인가? 반야는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반야를 성취하여 성불하신 것입니다. 이 반야를 우리는 ‘지혜 지(智)’로 풀이합니다.

일월(日月)과 같이 밝은 ‘지(智)’는 ‘알 지(知)’자와 전혀 다릅니다. 지(知)는 ‘화살 시(矢)’에 ‘입 구(口)’를 더한 글자로, 화살처럼 귀로 들 어왔다가는 입으로 나가버려서 내 속에 오래 머물 지도 않고 진정한 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곧 ‘지(知)’는 제 나름대로 알아서 써먹는 분별지(分別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반야의 지혜는 무분별지(無分別智)입니다.

분별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이며, 보편타당하며, 평등하고 원만한 지혜입니다. 이러한 무분별지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를 부처님의 사 지(四智)라고 합니다.

부처님만이 온전하게 발휘시킬 수 있는 네 가지 완벽한 반야 지혜, 그것은 대원경지(大圓鏡智)· 평등성지(平等性智)· 묘관찰지(妙觀察智)· 성소작 지(成所作智)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원경지는 이름 그대로 크고 둥근 거울과 같은 지혜입니다. 작은 거울은 영상이 조금밖에 비치지 않지만 크나큰 거울에는 모든 영상이 비춰 집니다. 모란 거울은 한쪽만을 비출 수 있지만 등

근 거울은 사방을 다 비출 수 있습니다. 보통의 거울은 사물만 비추고도 열라대왕 앞의 ‘업경(業鏡)’은 지난 세상에 지은 업만이 비추지만, 대원 경에는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있는 그대로 다 나타냅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대원경지를 성취했기 때문에 일체 중생의 마음속 일을 동시에 다 보십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인류, 네발 달린 짐승이나 풀벌레까지도 마음속까지도 낱알이 비춰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평등성지는 평등한 마음으로 비춰보는 지혜, 조그마한 차별심 없이 비춰보는 지혜입니다. 해와 달은 차별없이 빛을 비춥니다. 누구는 예쁘니까 더 많은 빛을 주고, 누구는 미우니까 조그마한 빛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한결같이 빛을 주고 또 즐 뿐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도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한테 별받았다” 부처님이 특별히 복을 준다” 등의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비광명은 조금도 모자 랐없이 나에게 비춰줍니다.

허물은 내 쪽에 있는 것이지 부처님 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되고 안되고의 열쇠는 내 쪽에서 쥐고 있는 것이지 부처님 쪽에서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부처님께서 미우니까 빛을 주고 예쁘니까 복을 주는 그런 분이려면, 그것은 귀신이지 부처님이 아닙니다.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예뻐한다면 그분이 어찌 대성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평등하게 일체중생을 살피고 보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요, 그와 같은 자비광명은 바로 평등성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묘관찰지는 과거, 현재, 미래의 아주 세밀한 것까지 남김없이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2천 5백년전에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방울의 물을 관찰하니 8만4천 마리의 벌레가 있구나, 우리의 몸에는 팔만 개의 털구멍이 있고, 하나하나의 털 구멍마다 구멍 마리의 벌레가 살고 있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다 입증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묘관찰지로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대집경』에는 부처님이 열반에 든 뒤 5백 년이 지났을 때, 천 년이 지났을 때, 2천 5백년이 지났을 때, 3천 5백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이 다라는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처승이 생각하고 교단이 어떻게 된다는 등의 불교 관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일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쪽 사람이 가만히 서서 손가락만 움직이면 저쪽 사람이 죽는다.”

“겨드랑이에 날개를 붙여 하늘로 날아다니자.”

“이제는 땅만 파먹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허공을 파먹고 사는 세상이 온다.”

“나중에 한 방울의 액체만 먹고도 살 수 있고, 팔만 편만 그냥 날아다닐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다.”

이 예언처럼 권총이나 레이저광선총들이 발명되어 서로 죽이고 헬기라이더를 타고 날기 시작했습니다. 원자·전자를 이용하여 공기속에서 영양분을 추출하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사람들이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는 세상도 올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묘관찰지로써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남김없이 꿰뚫어보고 계시며, 시방 세계의 모든 국토를 남김없이 관찰하고 계신 것이

니다.

마지막 성소작지는 짓는 바를 다 완성하는 지혜, 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을 다 알게 하는 지혜입니다. 곧,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상의 네 가지 지혜가 부처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중생에게도 이 지혜는 있습니다. 다만 감추어져 있어 부처님처럼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없을 뿐입니다. 교만의 티끌 속에 묻혀 빛을 발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생들은 교만의 먼지를 털어낼 생각이 없고 아상과 인상에 얽매어 무명만 키워 갑니다. ‘나’와 ‘네’로 편을 가르고 벽을 쌓아 더욱 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 갑니다.

정녕, 아상과 인상을 내세워 무명의 업장만 키워간다면 다가오는 과보는 너무나 명백해집니다. 굳게 닫혀 있는 지옥의 문도 그 업의 힘은 능히 열 수 있습니다. 불지옥도 칼지옥도 뱀지옥도 능히 만들어냅니다. 어찌 두려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고 늙음은 빨리 옵니다. 지금 마음을 되잡아 도를 닦지 않는다면 “제 잘난 체 안배우고 세월만 보낸다면 병들어 신음할 때 한탄만 가득하리”라는 말처럼 결과는 자명해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니다. 부디 아상을 버리고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하심을 하면 어느 곳에 서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심을 하면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참선, 기도, 경전공부! 그 무엇이든 좋습니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티끌이 차츰 사라져 어둠(무명)은 걷히기 시작 할 것이고 반야의 지혜는 발현될 것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니, 뒷날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 모두 정진하고 또 정진하십시오.

(편집자 주)

되고 안되고의 열쇠는 내쪽에서 쥐고 있는 것 아상을 버리고 하심을 하면 반야의 지혜는 발현

불교 총지종 서울 경인 교구 지회 자원봉사자 모집

여러분의 따뜻한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곳은 너무나 많습니다. 불교총지종 서울경인교구 신정회에서는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할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모우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나눔입니다. 나눔은 여유 있고 넉넉할 때 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돈을 번 다음에, 시간이 생겼 다음에 나누려고 하는 사람 혹은 나는 가난하여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 하는 사람은

사실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진정한 나눔은 부족함 속에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기간 : 항시 모집
 인원 : 000명
 대상 : 서울 경기도에 거주하는 총지종 교도
 문의 : 02-3452-7485

불교총지종 서울 경인교구 지회 합장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20

태장계만다라 '관음원(觀音院)'의 대명백신보살(大明白身菩薩), 마두관음보살(馬頭觀音菩薩)

지난 호에서 성관재보살의 위아래에 있는 '비구지보살(毘俱胝菩薩)'과 '다라보살(多羅菩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대명백신보살(大明白身菩薩), 마두관음보살(馬頭觀音菩薩)에 대해서 살펴 본다.

대명백신보살(大明白身菩薩)

대명백신보살(大明白身菩薩)은 다라보살(多羅菩薩)의 오른쪽(西方)에 위치하지만, 『대일경』에서는 여기에 백처존보살(白處尊菩薩)이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양존 모두 인상(印相) 등은 동일하며, 여성과 남성 차이 일 뿐이라는 설도 있으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존명(尊名)은 「하얗게 빛나는 커다란 지혜 있는 자」라는 의미로 증생의 마음이 때를 제거하는 작용을 나타낸다. 왼손에 들고 있는 개부연화(開敷蓮華)는 증생의 때묻지 않은 본래심(本來心)을 상징한다. 밀호(密號)는



대명백신보살



마두관음보살

한다. 『대일경』에서는 「대력지명왕(大力持明王)」이라고 불리운다. 『대일경소』에 의하면 정륜성왕(轉輪聖王)의 보마(寶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쉬지 않고 질구(疾驅)하는 것처럼, 목숨과 몸을 돌아보지 않고 증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보살의 커다란 정진력에 비유된다.

말(馬)은 동물 중에서도 특히 수초(水草)를 찾아 먹으나, 말 중에서도 특히 굶주린 말이 그 욕구가 강한 것처럼, 보살 중에서도 마두관음(馬頭觀音)은 증생구제의 마음이 매우 강하다고 한다.

연화부원(蓮華部院)에서 특이한 분노형(忿怒形)을 하고 있는 것은, 증생을 구하고자 하는 대비심(大悲心)의 번뇌를 끊는 작용을 강조한 때문이라고 한다.

존형(尊形)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일본의 민간신앙에도 널리 퍼져 있으며, 수험도(修驗道)의 「마가지(馬加持)」 등의 신앙도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밀호(密號)는 신질금강(新疾金剛), 담식금강(啖食金剛)이다. 삼매야형은 백마두(白馬頭)의 모습이다.

존형(尊形)은 적육색(赤肉色)으로 삼면이비(三面二臂)로 각면에 세 개의 눈

개부연화(開敷蓮華)는 증생의 때묻지 않은 본래심(本來心)을 상징
마두관음보살(馬頭觀音菩薩)은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고 증생구제

상정금강(常淨金剛), 방광금강(放光金剛)이다. 삼매야형은 개부연화(開敷蓮華)를 들고, 오른손에 여원인(與願印)을 맺고, 붉은 색 연꽃(赤蓮華)의 위에 앉는다.

인상(印相)은 연화합장(蓮華合掌)이다. 진언은 연화부발생보살(蓮華部發生菩薩)의 진언과 동일하다.

마두관음보살(馬頭觀音菩薩)

마두관음보살의 존명(尊名)을 범어로 살펴보면, 「준마(駿馬)의 머리를 갖고 있는 자」라는 의미로, 인도신화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으며, 비슈뉴신(神)의 열 여덟번째의 화신(化身)이라고도

(三目)이 있으며, 마두(馬頭)의 인(印)을 맺고 있다.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백마두(白馬頭)를 쓰고, 적연화(赤蓮華)에 앉는다.

인상(印相)은 마두인(馬頭印)을 하고 있다. 마두인은 허심합장(虛心合掌)을 하고, 두 무명지(無名指)를 안으로 넣어, 두 엄지를 구부려 손가락의 등 부분을 마주하게 하고, 두 엄지의 밑에 놔두고 밀알만큼 서로 뽕 모양을 하고 있는 결인이다.

진언은 "나막 사만다보다남 가타야 밤자 사파타야 사바하(namah samantabuddhanam khadaya bhāmja sphotaya)"이다.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씹어 드시기를, 부수어 주시기를, 파쇄(破碎)하시기를, 사바하"의 뜻이다.

(자료정리: 법정원)

생활속의 밀교

모든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법이 필요하고 감옥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감옥에 들어 가더라도, 그 이유를 물어 보면 그 대답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것과 저것을 훔쳤다고 고발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가 실제 그것들을 훔쳤 으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인과 그리고 진실과 부합되지 어떤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향입니다.

그것들을 올바르게 알아채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한단 말인가? 붓다와 제자들은 그 고귀한 진 리로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 고통이 어디서 일 어나는가? 어느 부위인가? 그렇게 스스로 묻고 그것을 발견해 보라. 여기서 아프고 저기서 쑤신다면, 그렇게 아프게 하는 자는 누구인가? 무엇이 그 아픔을 부추기는지 면밀히 보라. 그것이 어디서 오는 지, 그것이 어디서 아프게 하는지? 무엇이 그것을 아프게 하는 지? 무엇이 그것을 고통으로 인식하는 지를... 이 몸이 죽을 때 사람들은 이 몸을 화장해 버린다. 그때도 그것이 아플 것인가? 이것이 아프고 저것이 통증이라는 생각으로 그대를 속이는 그것은 누구인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일어난 탐욕과 갈애임을 알아차림

바로 그것이 자신이 받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의 이유입니다.

사람이 괴로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난 탐욕과 갈애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진 리에 일치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들은 그 진리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에서 일어나는 고통조차도 그것은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을 것 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올바른 이해가 그것에 현 명하게 대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 쳐 주신 법에 따라 고통은 이 몸과 마음에서 우리가 최초로 그것을 인식하게 된 이후로 계속적으로 나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들이 마음을 불건 전하게 오염시키는 지점에 이르면, 그것들에 의해 흥분하고 놀라며, 화를 내어야 합니까?

가? 길게 살펴보고 알아차려라.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 인을 발견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 얇은 물은 소리내어 흐르지만, 깊은 물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소리를 내는 법 없이 아주 조용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물을 채운 항아리 같고, 지혜로운 이는 물이 가득 찬 연못과 같습니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빛과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조용히 그리고 멀리 울려 퍼집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 할 때 우리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수 있습니다. 밀교의 수행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또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합니다. 모든 불행과 고통, 괴로움은 수행의 과정이며 성불의 바탕입니다. 슬프고 기쁘고, 억울함이 있어도 성불이 일어나도 오로지 진언연승으로써 이겨 나가십시오. (법경/통리원 사무국장/연구원)

▶ 어느 선각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 모든 고통은 고귀한 진리이다. 만약 우리가

진언수행의 길

중조님께에서도 종단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있으실 때는 몇몇 법을 받게 보시는 스승님께 정진 해 보도록 하셨습니다. 정진결과를 기록으로 남기셨 고, 결과에 의한 결정을 회의의 통하여 토의하시고 공포하셨습니다.

때 회사법을 따로 세우고 참회, 음담, 음지립, 육자 진언, 준제진언 21, 108편으로 연습한 후 마음속으로 내증코저 하는 결정사항을 생각한 후에 육자진언 7 회, 흡자오인, 회향서원으로 마칩니다.

진언행자의 현실생활에서 결과내증은 신행생활에 큰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 치게 매달려서 맹신이 나 과신을 하게 되면

주의할 사항으로는 첫째, 그날 보고 듣고 일어난 모든 것이 당체법문이니 바르게 판단하여야 한다.

결과내증 정진불공법

사도로 흘러 바른 신행이 될 수 없으므로 자주 하여 서는 아니되고, 꼭 필요할 경우에만 하되 스승님께 질문하여 행하는 것이 좋다.

둘째, 명령에 의한 것이나 기정화된 사실 에 대해서는 내증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방법으로는 매일 수행하는 정시 정승 후 식전이나 오전 중에 마음이 안정되어 정진한 마음이 이뤄졌을

셋째, 불공 중이나 자성일에는 내증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넷째, 결혼같은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므로 신중히 해야 한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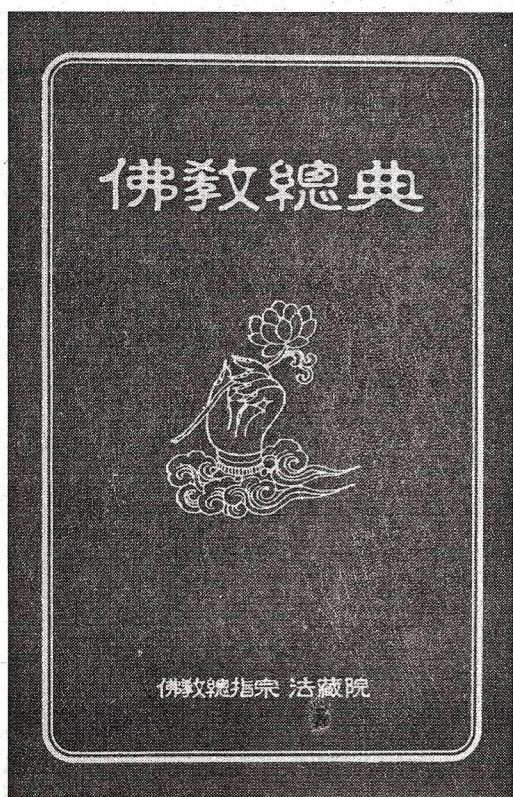
불교경전의 정화(精華)! 『불교총전』

팔만대장경의 주옥같은 말씀을 이 한 권에...

팔만대장경 가운데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처님 말씀을 이 한 권에 가려 뽑았습니다. 《불교총전》한 권으로 불교의 근본교리와 실천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교법(教法)/수도(修道)/업감연기(業感緣起)/ 자기에 대한 덕의(德義)/타인에 대한 덕의(德義)/포교와 구경해탈 및 열반



국판 고급양장 금박/700페이지/정가 35,000원

도서출판 불교총지종 Tel : (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총지논단

<기획연재>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

종조 원정 성사께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를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의 중흥과 함께 초창기 진각종의 기틀을 다지셨고, 이후에는 의례(儀軌)와 수법(修法)을 정립한 정통밀교종인 총지종을 창종 하셨습니다. 종조님의 숨결과 생전의 가르침을 유고(遺稿)를 통해 다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고는 진각종 재직 당시 총인으로 계시면서 쓰신 내용이며, 곧 개관될 '종조기념관'의 전시 유품 가운데 일부 원고입니다. 앞으로 원고를 계속 연재할 예정이므로 종조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통해 '종조기념관'을 미리 둘러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편집자주)

오고도 넓은 것을 이르는 것이다. 심인 불교(心印佛敎)는 본심불교(本心佛敎)라는 뜻이다. 미묘한 대각의 진리가 인(印) 치듯이 분명히 있으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어서 능히 보이고 또 줄 수 없으나 육자염송(六字念誦)으로써 대각(大覺)의 심인을 전수하여 자성을 깨닫고 선악을 알아서 행하는 교(敎)이다. 심인은 우이없고 깊고도 미묘한 부처와 보살과 중생의 본심이다. 해인(海印)은 각해심인(覺海心印)의 네 글자를 간단하게 두 글자로 줄인 것이다.

며 나의 마음이 넓고 크고 둥글고 차면 나의 집도 넓고 크고 둥글고 차는니라. ▶ 경에 이르되, 남의 악한 것을 보고 남의 허물은 보지 말라 하니 어떻게 하

참회하면 나의 허물이 없어질 뿐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도 곧 없어지니라. 나는 허물의 종자가 되고 아들과 딸과 며느리는 허물의 결과가 되는 것이니 나는

없어지는 것이니라. ▶ 아버지에 효순하면 자식도 또한 효순할지니 내가 불효하면 자식이 어찌 효순하겠느냐. 효순은 심덕의 대원(大元)

대각(大覺)님이 가정의 도를 설하시되 안을 닦지 아니하고 밖을 보호하려 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화가 안에서 솟아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동쪽이나 서쪽에서 오는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니라. 집에 어진 부인이 있으면 가정이 화를 만나지 아니하니 어진 부인은 가장을 귀하게 하고 악한 부인은 가장을 천하게 하느니라. 어진 며느리는 육친을 화하고 재주 있는 며느리는 육친을 파하느니라.

▶ 부처님이 탄생하시와 곧 일곱 자국을 동쪽으로 걸음하시고 이 같은 말씀을 하시되 나는 사람과 하늘과 이수라 가운데 가장 높으며 가장 우이라 하시다. [열반경]

이제 이 삼계는 다 나의 것이요 그 가운데 중생은 진실로 나의 아들이라. 이제 이곳에 모든 환란이 많으니 오직 내라야 능히 구호하리라. [열반경]

▶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세상에 나온 것은 큰 구름이 일체 만물을 운택하게 함과 같아서 목마른 중생으로 다 고통을 떠나게 하고 안락을 얻게 함이니 중생을 안락케 함은 세상에 능히 나를 미칠 자가 없느니라.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거든 다른 이의 목숨을 죽이지 말며 자기의 재물을 사랑하거든 다른 이의 재물을 도적질 말며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거든 다른 이의 아내를 범하지 말며 자기 말의 신용을 사랑하거든 다른 이를 속이지 말며 자기에게 화합을 사랑하거든 다른 이에게 이간을 하지 말며 스스로 만족을 받으려거든 탐욕을 내지 말지니라. (자료정리 : 총학연구실)

▶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중생을 서원코 제도할 것이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번뇌가 가이 없으니 서원코 끊을 것이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법문이 다함이 없으니 서원코 배울 것이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이 없는 참 도를 서원코 이를 것이다.

▶ 이제 이 삼계는 다 나의 것이요 그 가운데 중생은 진실로 나의 아들이라. 이제 이 곳에 모든 환란이 많으니 오직 내라야 능히 구호하리라. [열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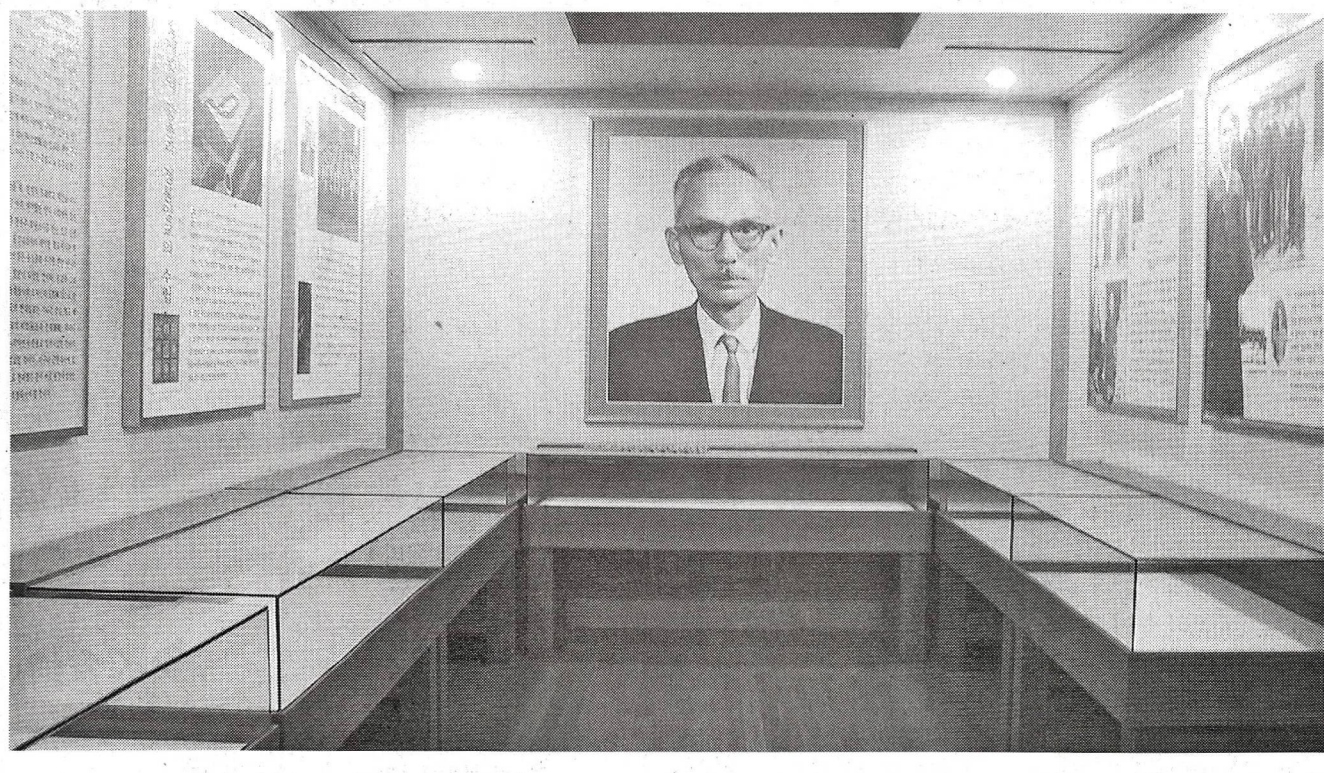
▶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세상에 나온 것은 큰 구름이 일체 만물을 운택하게 함과 같아서 목마른 중생으로 다 고통을 떠나게 하고 안락을 얻게 함이니 중생을 안락케 함은 세상에 능히 나를 미칠 자가 없느니라. [화엄경]

▶ 각해(覺海)는 깨닫는 바다라 불교를 말한 것이니 불교는 원체가 깨달음을 근본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다와 같이 깊

▶ 남의 악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하여야 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 그와 같은 허물이 나에게도 있는 것을 생각하고 찾아 보아서 내가 먼저 그와 같은 허물을 다시 짓지 아니하기를 참회하는 데 나의 허물만 없어질 뿐 아니라 다른 이의 허물도 곧 없어지느니라. 아버지는 허물의 종자가 되고 아들과 딸과 며느리는 허물의 결과가 되는 것이니 나는 저와 같은 허물이 없다고 하지 말라. 그의 허물이 나로 인연한 것이다. 인(因)이 없으면 과(果)가 없을 것이니 나의 적은 허물을 없애면 자식과 며느리의 큰 허물이 없어지는 것이니라.

▶ 말이 패역하게 나가면 또한 패역하게 들어오고 재물이 패역하게 들어오면 또한 패역하게 나가느니라.

▶ 회사공덕은 어떠한 것이냐? ▶ 현재에는 곤란재앙 우환질병을 미리 없애서 소멸하고 미래에는 부귀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느니라. 드러난 상벌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화복이 크며 사람이 칭찬하는 것보다 진리의 복덕성이 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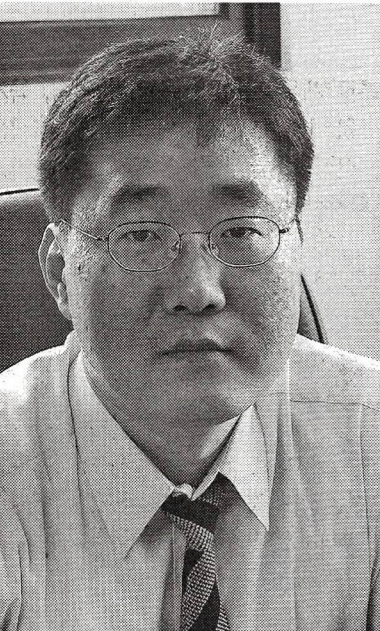


나는 허물의 종자가 되고 아들과 딸과 며느리는 허물의 결과 안을 닦지 않고 밖을 보호하려 하는 것은 그릇된 것

여야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아니하느냐? ▶ 그와 같은 허물이 나에게도 있는 것을 생각하고 찾아 보아서 내가 먼저 그와 같은 허물을 다시 짓지 아니하기를

저와 같은 허물이 없다고 하지 말라. 그의 허물이 나로 인연한 것이다. 인이 없으면 과가 없을 것이니 나의 적은 허물을 없애면 자식과 며느리의 큰 허물이

이요, 백행(百行)의 근본이라. 신교(信敎)의 으뜸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죽고 사는 것은 명(命)에 있고 부(富)하고 귀(貴)한 것은 인(因) 지음에 있느니라.



김장규 원장의 총지 동의보감

마음의 감기 혹은 자살

요즈음 각 신문마다 제공하고 있는 건강상식란에는 우울증을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마음의 감기'라는 가벼운 제목 아래 소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마음의 감기와 자살로 끝을 맺는 우울증의 관계는 무엇인가? 사람이면 누구나 평생에 몇 번쯤은 우울한 감정을 느껴보았을 것이다.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지가 사망한다면, 요즈음 30%에 육박한다는 이혼과 별거와 같

이 살아가면서 몇 번 겪어 어려운 일을 겪거나, 이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가까운 친지와 이별하는 것과 같은 일은 사람이면 누구나 한 두 번씩은 겪는 일일 것이다. 이런 어려운 일, 보통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이별을 겪는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은 우울한 기분을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우울한 정서가 일시적으로 있다고 해서 우울증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우울

한 정서가 그 정도가 정상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심하고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는 기간이 지나치게 지속될 때를 말한다. 이외에도 질병으로서의 우울증이 있을 때에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의 여러 부분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갑상선이나 부신 피질의 질병처럼 내과적 질환에 부수적으로 동반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상 생활의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기도 하지만, 특별한 스트레스나 내과질환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상당 수 있다.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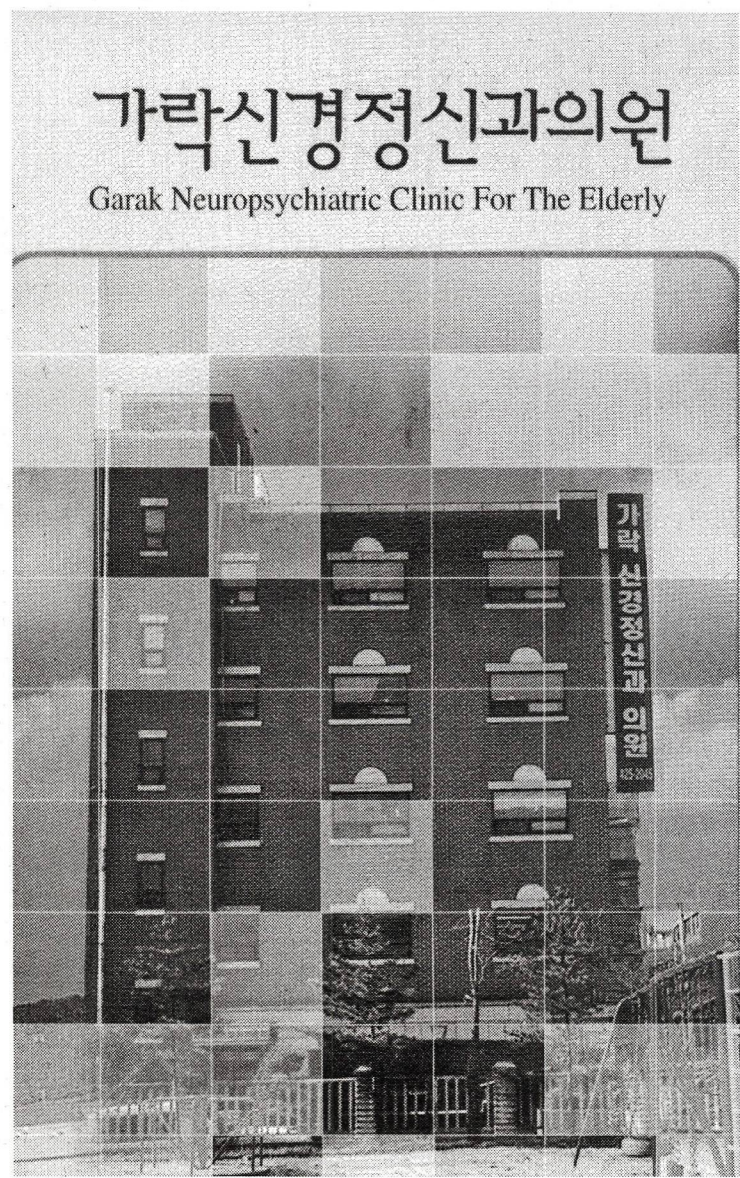
수 있는 좋은 항우울제가 개발되어 있어 우울증치료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울증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마음의 감기이며, 적절히 치료하면 쉽게 치유될 수 있는 병이다. 그러나 적

우울증은 정도가 심하고 우울한 기분이 지속된 것 항우울제에 의한 약물치료와 상담 및 정신치료가 유효

에서 장애가 발생하여, 흥미와 관심의 상실, 불면, 식욕감퇴, 초조, 집중력 저하, 자살사고 등의 부수적인 증상들이 생긴다. 무엇보다도 위험한 것은 우울증에 걸린 환자의 10-15%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는 점이다.

분은 가족중에 우울증이 있을 때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진다. 우울증의 치료에는 항우울제에 의한 약물치료와 상담 및 정신치료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작용이 별로 없고, 내성이 없어 필요하면 언제든지 끊을

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악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가락신경정신과의원 ☎ 02) 425-2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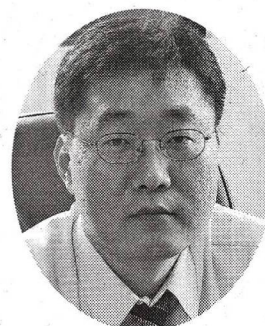
강남 최초의 노인치매 전문요양병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 요양병원입니다. 2003년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및 따뜻한 정성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전문진료과목>

- ◆ 치매: 치매란 과거에 "노망"이라고 부르던 노인성 질환입니다. 중년까지 잘 생활하시다가 노년 이후가 되면 기억력이 저하 길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몰라보는 등 인지기능이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거나 식사도 할 수 없게 되는 뇌의 퇴행성 질환입니다.
- ◆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기능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의식이 없어지거나 사지의 마비나 감각 상실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바깥출입을 못하고 식사나 위생 등 일상생활의 유지에 주변사람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 ◆ 노인성 우울증: 노년기에 흔한 신경정신과적 질환의 하나로 우울감, 불안 초조, 불면 및 흥미상실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고통스러운 질환이다. 상담과 약물치료를 잘 치료가 되는 질환이나 본인이나 가족이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적절하게 치료되지 못하는 질환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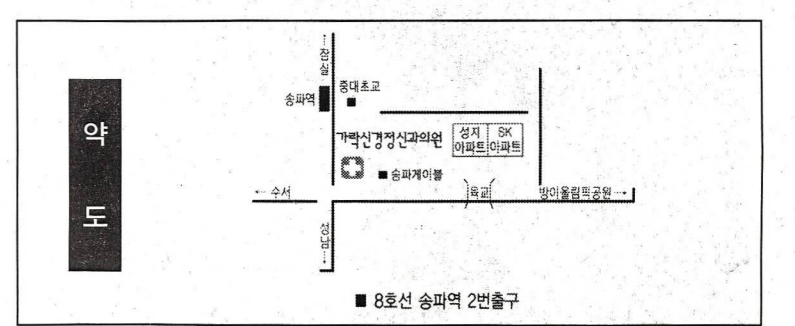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02)425-2045 fax : 02)423-1726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85



김장규 가락신경정신과원장

- ### 주요경력
-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정신과과장
 - 2000년 전임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전공)
 -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 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 2002년 박사학위과정 수료(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년전문병원 정신과 과장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진료시간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풍경소리

시집가는 딸에게

세월이 빨리 간다 그런 말 있었지요
강물같이 흘러간단 그런 말도 있었지요
우리 딸 어느새 자라 시집간다 그려네오
어려서 자랑지랑 품안에 안겨주고
봄바람 산들바람 신통 같던 그 아이
이제는 제 배필 찾아 묵은 동지 떠난대요
신랑도 좋은 청년같은 학교 선배사이
그동안 만나보지 못한 마음 바른 행동
멀리서 보지만 해도 미더웁고 든든해라
애들이 하루하루 작은 일이 소중하다
사랑은 마음 속에 숨겨놓은 난초화분
서로가 살피주어야 예쁜꽃이 핀단다
부모가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지요
다만 그저 두 사람 복되게 잘 살기를
손 모아 빌고 싶어요 양보하며 살거라

- 내태주/시인

산나리

널 향한 그리움을 놓으며
나, 먼 산만을 바라보기로 다짐했다.
적나라한 유월 햇살 아래
살아온 내력을 묻는 땅 끝의 견고한
목목히 견디어 내며
어느 곳, 후미진 그늘에서라도
말간 향기로 가득 차 올라
가다림만을 배우기로 했다.
숨 막힐 듯 조여드는 지열의 질투
도심 번두리의 번명아래서라도
홀로를 견디는 인내를 배우기로 했다.
널 향한 그리움을 놓으며
나, 참된 그리움을 배운다.

보다 젊은 당신에게

산은 오르며 한번도 뒤돌아 보지 않았던 건
잘못이었습니까.
꼭대기에 이르자,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말라 죽어가면서도 변명하지 않는 나무들과
더 이상 솟을 데 없는 정상의 외로움에 둘러싸여
잡초만 후회처럼 무성하였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자존심을 앞 세워 곧장 내달아온
나의 발걸음은
가시 없는 곳에 서둘러 나를 데려온 셈입니다.
건너 편 산은 나에게서 돌아앉아
푸른 등을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아무도 기다려주지 못한 후회에 치가
떨었습니다.
가다리지 않은 만큼, 정상에는
나를 기다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멀어지던 계곡의 물소리마저
내가 멈추었던, 더 이상 멀어지지 않았겠지요
아, 온갖 소문에 쫓겨 서둘러 올라 왔는데
잡초만 후회처럼 무성한 여기는 정상입니다.
- 김세웅/세종인민문화원장, 시인

사년법

이 다음에 태어나면 나무가 되리라
어느 생의 소망이 이루어진 줄 모르고
평생을 한자리에 붙박였다 답답하다 하는가
한시도 쉴 새 없이 헤매다나 보니
세상 볼 것 안 볼 것 다 본 역마살의 생이
이제 폭 쉬면서 수양하는 중이다.
어떤가, 부질없는 꿈을 잡으려
동분서주 땀내 나는 몸부림을
나보다 누가 더 잘 알겠는가
가끔 옛 버릇이 잡초처럼 돌아오면
손 내밀어 지나는 구름도 슬쩍 잡았다 놓고
바람 더불어 신나게 춤도 추지만 아무래도
다음 생을 생각해서
명상에 들어 잡념의 입을 떨구는 것을
또 외로워 보인다고 동정하지 마라
지금 나는 그지없이 행복한 순간에 있다.
- 최호림/시인
(자료제공 : 불교문예)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 밀교 ~반야심경편 제 34화~

글:그림/정수일

아니, 근데 금방까지 있던 염라사자는 어디로 갔지?

대성사님, 전 이 인간계가 싫어요.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하하하... 다 마음의 장난, 일체유심조 아니겠어요?

하하하... 물론 있지요.

또 잡으러 올겨---

헉!

염라사자도 물러갔고 하던 얘기나 계속할까요?

하늘세계, 즉 천계가 있지요.

천계가 있대요.

천계가 아니라 천계라잖아!

그..그래. 천계,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말을 트고 지냈나요?

히히히히. 죄송합니다.

지옥부터 천계까지를 "육도"라 하고 천계위의 성문, 연각, 보살, 불계를 합해서 "십계"라고 합니다.

"성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느껴 깨달음을 얻는것을 말하고 "연각"이란 부처님의 교화에 의하지 않고 12인연의 이치를 관찰하여 홀로 깨달음을 말하며 다른 말로 인연각, 독각, 벽지불 등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아~줄려.

배터리가 고쳐되었습니다.

전장! 여기 500 둘하고 음료수 한 병 가져와요.

배터리의 파열로 인하여 데이터 저장에 더 이상 되지 않으니 배터리를 교체해 주세요--

피리릭-

"보살"이란 "보리살타"의 준말로 위로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 일체중생을 구하기 위한 "자리아타" 즉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수행을 닦아 드디어 부처님이 될 경지나 수행자를 말합니다.

즉,나 같은 분이지. 자네도 내 덕에. 한잔 더 하는 거고 나도 돈 벌어서 좋은 것 아닌가.

에이, 순.....

그리고 마지막의 "불계"는 말 그대로 부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다 같이 열심히 수행하여 부처님 되십시오. 오마니반메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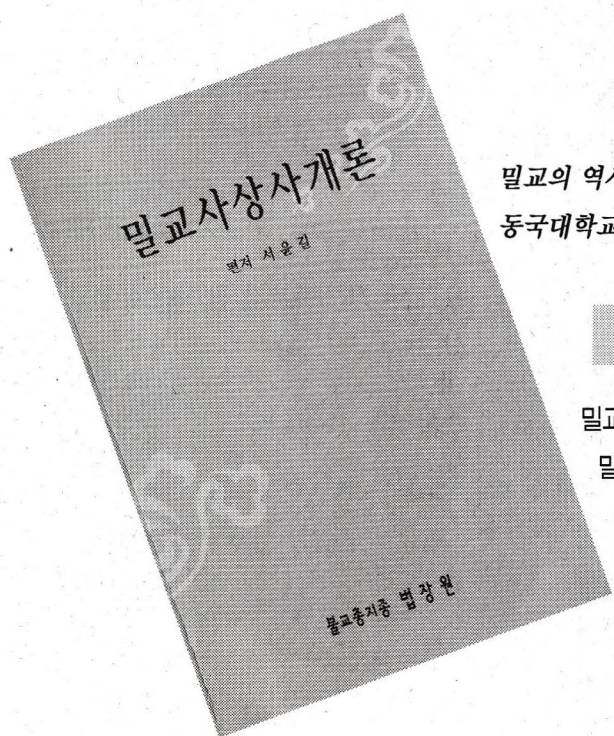
이달의 명상

유화선순은 자비심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유화선순보다 더 큰 힘을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질위주의 사회 또는 난세가 되면, 흔히들 강하고 투쟁적이며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거나 약사빠른 것이 필요 불가결한 듯이 말하지만, 그 생명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드러운 것은 이기지 못하고, 투쟁은 화합을 넘어서지 못하며, 이기심이 선한 마음을, 약사 빠름이 순수함을 따라잡지는 못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유화선순은 곧 자비입니다. '자비는 무죄'이라 하였듯이 자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화선순은 이토록 중요한 것이므로 이 마음가짐을 한시라도 버려서는 안됩니다. 나아가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말과 행동이 부드럽고 평화롭고 착하고 순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유화선순의 몸 그 자체가 되면 어떠한 중생이라도 교화할 수 있으며, 부처를 이룰 날도 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런데 정정한 대중과 함께 생활하면서 유화선순은 커녕, 스스로 잘난 체하는 교만으로 가득 채운다면 그의 장래는 너무나 암담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부까지 그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만에 빠져서 올바른 공부를 하지 않는 수행자는 오히려 더 큰 업을 쌓을 뿐입니다.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이승만뿐만 아니라, 나와 너는 똑 같다고 하는 이등만, 내가 너보다 못하다고 하는 이열만의 경우까지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실로 내가 제일 잘 났다고 우쭐대거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수행을 역행시키고 무명을 증장시키는 지름길 될 뿐입니다. 진정 처음 발심하였을 때의 그 마음과 같이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항상 유화선순을 생각하고 자비와 지혜를 함께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밀교사상사개론』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운길 교수 외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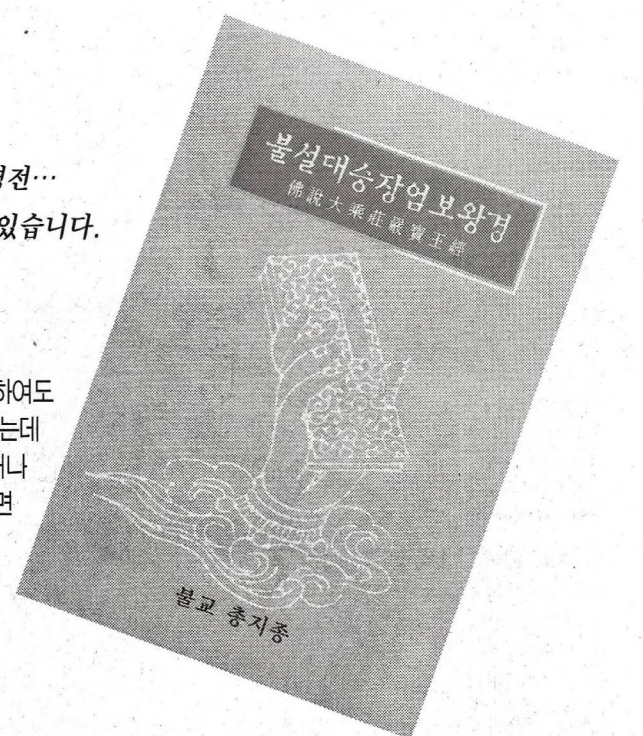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유자대명다라니 <오마니반메흠>의 유래와 공덕을 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베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니라." ---본문 중에서---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도서출판 불교 총지종
Tel:(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문화기행

중국불교 유입의 길목을 따라

중국 감숙성 불교계를 돌아보며(3)

대작 불사가 이루어지는 역동의 감숙성 불교계

이 글은 법정원 연구원인 화령 정사가 중국 감숙성 불교유적지와 현재 그 지역에서 불교의 역할을 이끌고 있는 중심사찰을 돌아보고 쓴 글이다. 감숙성은 실크로드를 가는 간선도로가 펼쳐져 있는 곳이기도 하며 중국에서 서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인 최초의 땅이다. 이곳에는 불교 전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수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으며, 그 중에서도 둔황 석굴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불교유적지이다. 이 글은 감숙성의 불교 유적과 함께 그곳에서 만난 불교계의 여러 인사들에 대한 느낌을 곁들여 3회 연재 중 마지막 글이다.

노니는 천녀(天女)를 묘사한 것인데 둔황 벽화에 그려져 있는 것을 대략적으로 조각한 것이다. 역동적인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둔황시의 상징으로 삼은 것 같았다.

우리가 도착한 것이 거의 오후 6시경이었는데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중국은 지역이 넓어도 시차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시간을 하나로 통일해 놓았기 때문에 이곳 둔황은 해가 늦게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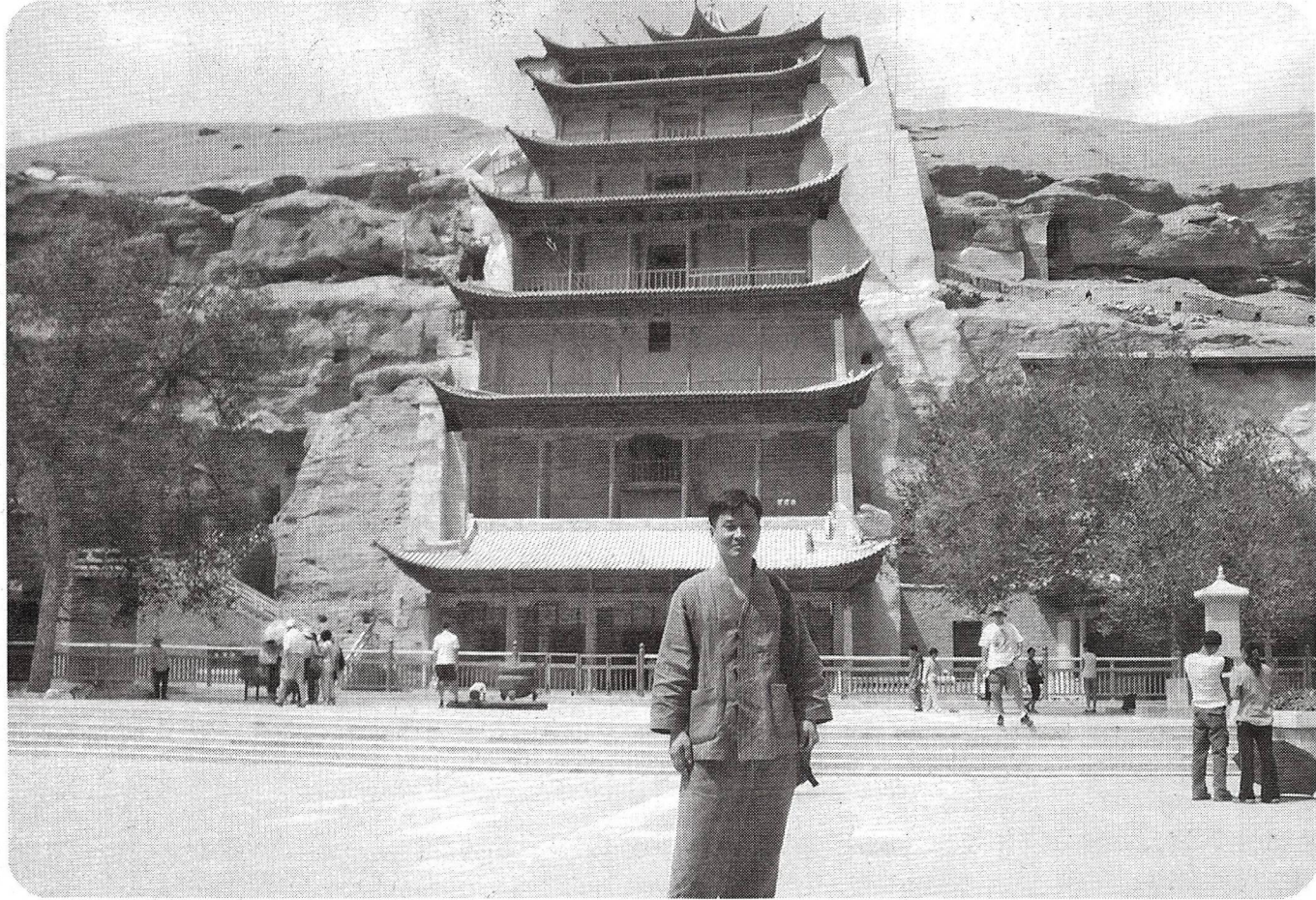
호텔에 여장을 풀고 저녁을 먹고 나오니 9시가 되었는데 그제서야 겨우 해가 넘어간다. 호텔을 나와 시내의 중심이 되는 양관로(陽關路)를 따라 야시장 구경을 갔다.

수많은 관광객이 거리를 누비는데 한국인 관광객도 상당히 많았다. 인구 13만의 둔황시가 마고굴 하나로 먹고사는 것 같다. 야시장에서는 둔황 마고굴의 벽화 복제품이나 조각 등 기념품을 팔기도 하고 회화들이 양고기를 구워 파는 곳도 많았다.

이곳만 해도 회화나 위글 족 등 소수민족이 상당히 많이 산다고 했다. 나도 둔황벽화의 반탄비파상과 관세음보살을 묘사한 작품 몇점을 샀다.

둔황은 중국 본토와 서역, 나아가서는 중앙 아시아로 이어지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이 지역을 서역 진출의 고두보로 삼았고 한 무제 때는 여기에 하서절도사를 두었다.

그러나 중국 왕조의 힘이 약해질 때는



마고굴 복대불 앞에서

는 마고굴 때문이었다. 마고굴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저 군사적 요충지에 불과했으나 근세에 들어 동굴이 외국인들의 손에 약탈되면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된 곳이다.

별도 총총해서 마치 손에 가득 움켜질 것 같았다. 옛 사람들도 수천리의 사막길을 달려와서 이렇게 둔황의 달과 별을 바라보며 하루를 묵었을 것이다. 오랜만에 흠뻑 목을 축이고 모래 먼지를 씻어 지친

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로 개발된 곳은 남쪽 벽면으로 492개의 동굴이 있으며, 최근에는 북쪽의 동굴도 개발되어 현재 280여 개가 발굴되어 있다.

옛날에는 천불동이라 했는데 아마 사막

마고굴이 발견된 것은 1900년경에 왕원록(王圓)이라는 도교의 도사에 의해서였다. 이 왕도사는 말이 도사이지 그다지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크게 있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이곳에 와서 동굴 하나를 발견하고 거기에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동굴 벽면에 구멍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고 그 구멍을 계속 파보니 그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적들이 두루마리 형태로 보존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것이 이른바 훗날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장경동(藏經洞)으로 알려진 동굴이다.

이 왕도사는 둔황현청에 그 사실을 보고했더니 관공서에서는 아무 응답이 없었고 그저 적당히 보관하라는 말만 들었다.

그래서 왕도사는 사람들에게 두루마리도 보여주고 나누어 주기도 하면서 의식 걱정 없이 살고 있었는데 1907년 영국인 영국인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곳을 찾아왔고 왕도사는 이 영국인에게 자기로서는 엄청난 돈을 받고 그 두루마리들을 넘겨주었던 것이다.

또 이듬해는 프랑스인 페리오가 와서 꼼꼼히 살펴보고 옮길 수 있는 만큼은 가져갔는데 이 페리오라는 사람은 한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그 두루마리들 가운데에서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가져갔다.

따라서 뒷날 밝혀진 것이지만 스타인은 한문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마구잡이로 가져갔고 페리오가 가져간 것은 학술적으로 훨씬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았다. 그 뒤 일본원정대나 러시아인들이 나머지를 모두 들고 가 버렸다.

이들이 가져간 두루마리 경권들이 훗날 학술적으로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는 이들도 미처 몰랐다. 왕도사라는 어리석은 중국인 한이에 의하여 중국은 어마어마한 보물창고의 문을 열어 외국인 약탈자들에게 넘겨주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마고굴을 들어가는 진입로에 왕원록의 무덤이라고 해서 탑을 세워 놓았는데 도대체 왕도사가 무슨 공로가 있었다는 건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었다.

9면 계속

둔황은 중국 본토와 서역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요충지
마고굴은 시내 동남쪽의 명사산 동쪽 단층지대 위치

는 이민족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적인 것과 외국적인 것이 혼재해 있는 특이한 도시였다고 할 수 있다. 둔황 마고굴의 벽화 분위기도 그러한 혼재의 양상을 띠고 있다.

둔황이 더욱 유명해 진 것은 물론 남쪽 교외의 이른바 천불동(千佛洞)으로 불리

어제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마고굴을 보기 위해 이곳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그 옛날 둔황이 흥성하던 때를 연상케 한다. 옛날의 둔황 시내의 모습은 어땠을까? 마침 오늘이 음력 16일이라 달이 매우 밝다. 사막 가운데의 오아시스에서 쳐다보는 달이 무척 새삼스럽다.

몸을 추스르고 마음껏 먹고 취하면서 하루 저녁을 즐겼으리라.

다음날인 8월 2일 아침 드디어 마고굴을 향해 떠났다. 마고굴은 둔황 시내의 동남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명사산(鳴沙山)의 동쪽 단층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총 길이 1.6킬로미터에 걸쳐서 남북으

의 거친 모래바람에 많은 동굴이 매몰되고 파괴되어 이 정도가 남은 것 같다. 마고굴은 대략 서기 366년 전진(前秦) 시대부터 만들어져 복위, 수, 당, 송, 원, 명, 청대에 까지 계속해서 축조되었다고 한다.

16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던

실크로드의 요충지-둔황
천불동 마고굴의 신비를 찾아

유림석굴을 참관하고 기린산맥을 왼쪽에 끼고서 석양빛을 받으며 둔황을 향해 달려갔다. 한 여름에도 눈이 덮힌 기린산맥은 난주에서부터 계속해서 이곳 둔황까지 이어진다. 기린산맥에서 눈 녹은 물이 내려와 그나마 사막을 약간은 적셔준다고 한다. 한참을 달리다가 보니 녹지대도 많이 나오고 농경지가 많이 나타났다. 특히 목화밭이 많이 보였고 옥수수 밭도 많았다.

삼막한 사막만 보다가 이렇게 녹지대가 나타나니 감동이 좀 가시는 느낌이 든다. 녹지대가 많아지는 것을 보아 사막의 오아시스 둔황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유림석굴을 나와 세 시간 정도 가니까 왼쪽으로 둔황 비행장이 보이고 다시 모래 산들이 나타났다. 저 모래산에 그 유명한 천불동 마고굴(莫高窟)이 있다고 했다.

내일 드디어 저 곳을 가보는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인다. 몇 킬로를 더 지나니 둔황 시내가 나타났다.

시내 한 복판의 로터리에 둔황의 상징인 반탄비파상(反彈琵琶像)이 10여 미터의 높이로 우뚝 서서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 반탄비파상은 비파를 등에 짊어지고 오른쪽 다리를 들어올리고 흥겹게

Advertisement for '여성美' clinic featuring a photo of a woman and text about various gynecological services.

Advertisement for '여성美' clinic listing services like gynecology,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along with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여성美' clinic showing a map of the location and a list of nearby landmarks like Starbucks and Subway.

Advertisement for '여성美' clinic showing various medical equipment and services like ultrasound, laser treatment, and fertility treatments.

8면에 이어

세계의 보물 장경동 전적 외국인에 의해 약탈당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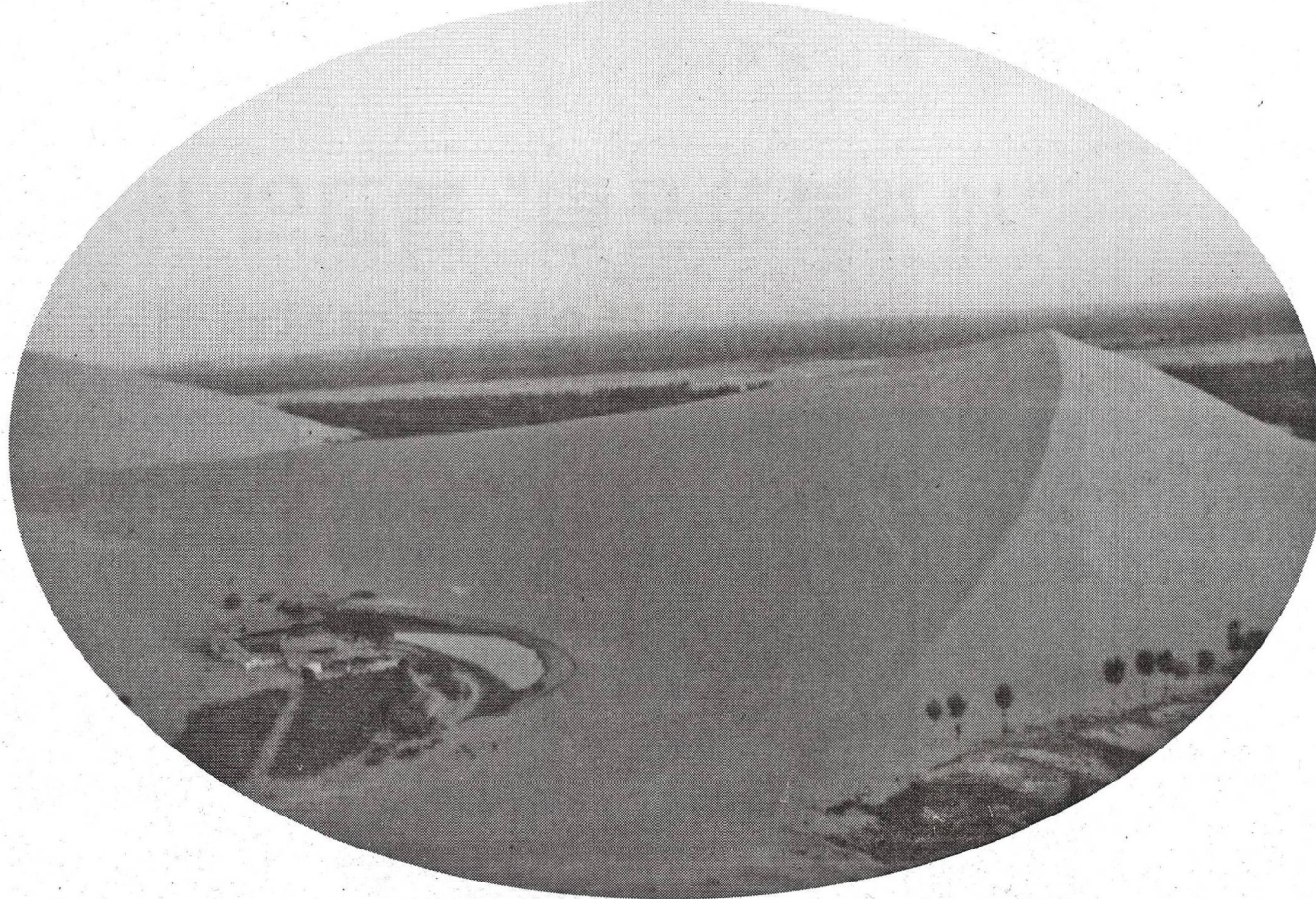
어쨌든 이들 외국인이 가져간 자료는 모두 4만 권이나 되는데 운반도중에 분실과 훼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다.

예를 들면, 짐을 나르던 인부들이 두루마리 한쪽을 쪽 찢어서 담배도 말아 피우고 박스의 구멍도 메꾸고 하는 식으로 그 귀중한 자료들이 무지로 인해 영원히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이들 자료의 내용은 고대의 불교관련 전적들이 주종을 이루고 역사, 지리, 문화, 미술, 언어학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감춰진 사실을 알려주는 데 할 나위 없이 귀중한 자료들이었다.

신라의 해초 스님이 쓴(왕오천축국전)이 발견된 것도 이들이 가져간 자료 안에 있었던 것이다. 동황 장경동의 이러한 자료들은 불교학뿐만 아니라 동양학, 그리고 세계문화사 전반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뒤집어 놓는 획기적인 자료들이었다.

이제 동황 마고굴 안에는 이러한 자료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벽화와 진흙으로 만든 불상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벽화와 불상도 불교와 불교 미술을 이해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



명사산과 월이천

입구에 들어서면 '석실보장(石室寶藏)'이라고 쓰인 현판이 큰 일주문에 걸려 있고 그곳을 지나면 다시 '마고굴'이라고

해서 보여주는데 그나마 보여주는 데만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곳을 둘러보려면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며 490여개나

황 냄새가 나지 않고 초등학교이 휴장난 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 옛 모습이 남아 있는 것 가운데에서

석실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양한데 그 느낌은 직접 보지 않고는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어렵다.

1902년 무렵에 소련의 공산 적군에 쫓겨 망명해 온 백계 러시아인들을 위해 양 증신이라는 관리가 그들에게 이 동굴을 피신처로 제공했는데 그 때에 동굴이 많이 훼손되었다고 한다.

백계 러시아인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술을 걸고 밥도 해 먹고 해서 그들음이 생겨 벽화를 다 망쳐 놓았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벽화 복원을 위해 많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때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 보호만 잘해도 자손 대대로 먹고 사는데 나라가 후진이고 미개하면 이런 경우를 많이 겪는다. 얼마 전에 파괴된 아프가니스탄의 마미안대불도 무참하게 파괴되었지만 만약 그대로 보존되었다면 전세계의 수많은 불자들이 두근두근 방문해서 외화획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은 계속된다. 우리 옛절은 산세와 어울려 절묘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수행도량으로서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좋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원경계가 풍족해지면서 그러한 좋은 자연 배경을 허물고 부조화스러운 대형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마고굴의 석실은 크고 작은 것이 두루 섞여서 각자의 개성을 자랑하고 있다.

내가 본 석실 중에서 285굴은 천정까지 벽화가 가득 차 있는데 마치 하늘나라에 온 느낌이 들었다. 그 이외에도 112굴의 반탄비파상이라던가 159굴의 천녀상, 57굴의 보살상 등은 너무 아름다웠다. 그 밖에도 비천상의 원형이나 천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석실이 많았다.

잠시 시공을 잊고 동황 벽화의 웅장함

과 화려함에 취해 있다가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야 했다. 나머지 못 본 부분은 책을 통해서 볼 수밖에.

마고굴을 나오다 보면 진입로에 뫼음사(靑靑寺)라는 절이 있길래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서 중국불교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다.

이상한 제복을 입은 청연남녀들이 관광객을 불렀고 향을 사라고 권유하면서 향을 사지 않으면 대웅전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스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알아보니 이 절은 제승(誦承)이라는 노스님이 발원해서 몇몇 유지들과 함께 1999년에 절을 세웠는데 2001년 어느 날 밤에 강객들이 몰려와서 이 절을 점수해 버리고 스님들은 내쫓아 버렸다고 했다.

스님들은 지방 관청에 탄원도 해 보고 그 지방 종교국에 알리기도 했지만 탐관오리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감싸고 돌면서 절의 수입은 나누어 먹기를 하기 때문에 요지부동이라는 것이었다.

불교협회에 아직 이런 곳에 힘이 미치지 못하고 그 노스님은 원통한 마음으로 누른 채 각계에 하소연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하루 빨리 중국불교계가 힘을 얻어 이런 탐관오리와 강객 집단들을 몰아내고 모든 사찰이 스님들에 의해 운영되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 관광객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이해하고 스님이 없이 운영되는 이런 뇌음사와 같은 절에는 보시를 삼가해 주었으면 한다. 아마 중국불교협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사원들이 중국 전역에 많이 있을 것이다.

하루 빨리 중국 불교계가 발전하고 중국불교협회가 힘을 얻어 제대로 된 불교가 중국에 뿌리내리기를 염원하면서 감속성 일대의 불교유적 답사를 마쳤다.

(끝)

동황 장경동의 자료는 세계문화사의 기존 연구를 뒤집는 획기적 자료 벽화의 특성은 힘있는 선과 역동적인 묘사가 특징

들이다. 최근 중국정부에서는 동황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해 놓고 동황 연구를 중국 주도하에 이끌어갈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동황은 중국에 있지만 동황 연구는 외국에 있다."는 말처럼 지금까지는 모든 문헌이 외국에 있어 외국인 위주로 동황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복사기술의 발달로 외국 문헌자료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는 동황 연구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한다.

명사산은 아주 가는 모래로 이루어진 산인데 밟으면 뽀드뽀드득하는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명사산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과장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은 바람에 모래가 쓸려 올라갈 때 우레와 같은 소리를 울리기 때문에 명사산이라고 했다는 말도 한다.

이 명사산의 동쪽에 단애(斷崖)가 형성되고 거기에 마고굴이 있는데 지금은 백양나무를 앞에 두고 남쪽굴과 북쪽굴로 나누어져 있다. 북쪽굴은 최근 개발된 곳이고 현재 관광객에게 개방되는 곳은 남쪽 동굴의 일부이다.

쓴 일주문이 보인다. 그곳을 지나면 정면에서 약간 비껴나 9층으로 된 누각이 보이고 그 좌우로 길게 석굴이 늘어서 있다.

이 9층 누각을 복대불이라 하는데 이 안에는 당나라의 측천무후 시대에 만들어진 33미터 높이의 미륵불이 모셔져 있다. 남쪽에도 이와 비슷한 누각이 있는데 그것은 남대불로 부르고 여기에도 26미터 높이의 미륵불이 모셔져 있다. 석실에는 모두 일련번호가 붙여 있었는데 이것은 최초로 프랑수아 페리오가 붙였다고 한다. 나중에는 중국의 유명한 화가인 장대천(張大千)이 동황예술연구소 직원으로 있으면서 다시 번호를 매겼는데 연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의 이름을 따서 P와 C로 함께 번호를 적어 놓았다.

옛날에는 나무로 난간을 만들어 석실을 드나들었던 모양인데 지금은 전부 시멘트로 발라져 있고 전면의 벽도 모두 시멘트로 범벅이 되어 있어 옛 모습이 그대로는 거의 볼 수 없다.

더구나 문물 보호를 위해 석실 앞에는 전부 문을 달아 자물쇠로 채어놓고 있었다.

관광객들에게는 겨우 10여 군데만 한정

되는 석실을 제대로 다 보려면 몇 년은 걸려야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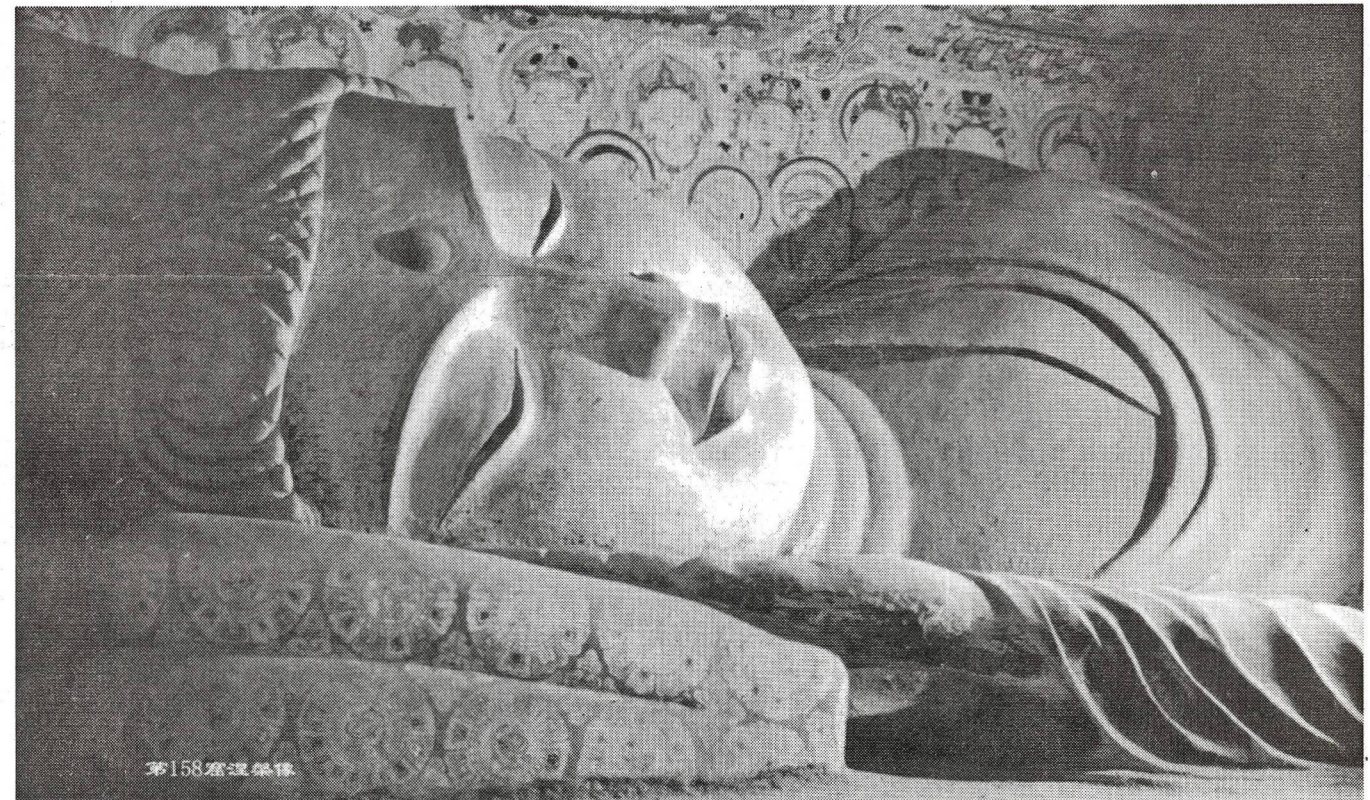
이 곳의 벽화는 크게 나누어 부처님과 보살, 호법신장을 그린 것이 많고 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생담 등 불교 관련 고사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 중국의 신화를 소재로 그린 것, 석굴을 만드는데 경제적 후원을 했던 사람이나 그들의 가족을 그린 것, 장식이나 도안 등을 그린 것, 산수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위낙 긴 시간에 걸쳐서 조성된 벽화들이기 때문에 한 마디로 벽화의 특성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힘있는 선과 역동적인 묘사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불·보살의 상들은 거의가 다 진흙으로 만들어 채색을 입힌 것인데 이것을 전문적으로는 소조채색상(塑造彩色像)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목불이나 동불에 비해 훼손이 심하지만 남아 있는 것들은 대체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묘사가 섬세했다. 나머지 소상은 거의가 다 청대에 와서 개보수를 한 것으로서 예술적 감각이 없는 비전문가가 했는지 상해도 이상하고 채색도 희끄무레하게 되어 있어 전혀 돈

328굴의 부처님은 상호와 자태가 너무 장엄하여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158호굴의 와불

불교방송 총지중 광고, 교리강좌 안내

천년의 잠을 깨고 우리 앞에 나타난 밀교!
범신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무언의 설법을 통하여 마음의 비밀을 깨달아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정통밀교의 숭고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탁악세를 정화하고 무량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할 비밀의 문!
그 문의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통밀교 불교총지중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고기간 및 시간 (9/14~3/4)
오전 10시 30분, 오후 5시 30분

※불교방송 강좌 안내

- ▷ 프로그램명 : 불교강좌
- ▷ 방송시간 : 오전 6시 5분~6시 25분 / 오후 9시 5분~9시 25분(재방)
- ▷ 강사 : 화령 정사
- ▷ 방송기간 : 총기33년 10월 11일부터 3개월간

BBS FM 전국네트워크	서울 FM 101.9MHz	청주 FM 96.7MHz
	부산 FM 89.9MHz	춘천 FM 100.1MHz
	광주 FM 89.7MHz	안동 FM 97.7MHz
	대구 FM 94.5MHz	포항 FM 105.5MHz

노인시설확충 정부 재정지원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2007년 시행



공간을 평상시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시설로 활용하거나 법인차원의 신규시설 건립으로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며 "신도들도 자

"부처님의 인연법에 따라" 태고종, 264명 최대 수계산림

지난 27일 전남 순천시 선암사에서 봉행된 '제28회 태고종 사미(나)계 수계식'에서는 종단 수계산림(초급승려 교육) 사상 최대 규모인 264명이 4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예비 승려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이들 신참 스님 중에는 교장과 의사, 공무원, 경찰, 배우, 미술가, 대기업 임원 등 다양한 직종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눈에 띄었다. 태고종은 대처승 제도도 있어서 그런지 수계산림 법회에는 가족들이 많이 참석해 화교 졸업식장을 방불케 했다.

태고종 초급 승려가 되려면 사찰에서 1년여 행자 생활을 거친 뒤 4주간의 행자 교육과 득도 시험 등을 통과해야 하는데, 교육 중 수행과정이 워낙 까다롭고 힘들어 이번 수계산림에서도 17명의 낙오자가 나왔다. 이들은 공부를 계속하다 1년 후 연수교육을 통해 정식 승직에 올려진다. 지원자의 학력은 대학 졸업 이상(종립 동방불교대학 재학생 54명 포함)이 160명으로 예

2006년이 되면 전체인구 10명중 2명인 20%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추진하고 있어 각 교계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 시행되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골격은 2013년까지 요양시설 완전 확충, 전문인력양성 등 기반을 마련하고 2007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같은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2003년부터 요양시설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13년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시설 900여개소 등 1200

여개의 노인시설을 세우는데 매년 1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설확충과 더불어 전문인력양성에도 신경쓰고 있다. 기존에 배출된 사회복지사 등을 노인들의 욕구과약과 요양계획, 서비스를 조정하는 요양관리사로 전환시키고, 간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도 기존 간병인력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요양복지사의 경우 자원봉사 등으로 경력을 쌓은 일반 불자들의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불자들의 전문간병인력으로서의 진출은 우리나라 불교의 대사회 활동에도 공헌해 불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찰 등 종교시설의 일정

공간을 평상시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시설로 활용하거나 법인차원의 신규시설 건립으로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며 "신도들도 자

사회는 점점 더 혼란해지고, 어느 사안든지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으면 상대를 헐뜯고, 비난하느라 정신들이 없다. 다시 말하면 상대가 제기하는 모든 것들이 비난의 대상일 뿐이 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일은 정치권에서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권의 국론분열로 인해 사회는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사람들은 서로 서로 자신들의 이익과 안락만 추구하고, 물리적인 힘까지 동원하여 자신들의 권리와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광명을 받아 서로 상생하는 사회가 되도록 각자 선행을 행하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상을 버리고 하심하는 자세로 생활하여 혼탁하고, 분열된 사회에 감로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김민규/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로 상생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어떤 일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인가? 를 먼저 생각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는 일 모두가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앞으로 정치권은

신행체험 15

부처님의 진리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



박옥란(수장) 보살 <정심사 신정회 회장>

▶처음 총지중에 입교하게 된 계기? 제가 총지중에 입교하게 된 것은 총지중이 창종되기 전 아마 39년전 진각종시절에 언니의 권유로 인해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총지중이 창종된 후 원정법에서

▶처음 총지중에 입교하게 된 계기? 제가 총지중에 입교하게 된 것은 총지중이 창종되기 전 아마 39년전 진각종시절에 언니의 권유로 인해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총지중이 창종된 후 원정법에서

▶처음 총지중에 입교하게 된 계기? 제가 총지중에 입교하게 된 것은 총지중이 창종되기 전 아마 39년전 진각종시절에 언니의 권유로 인해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총지중이 창종된 후 원정법에서

▶처음 총지중에 입교하게 된 계기? 제가 총지중에 입교하게 된 것은 총지중이 창종되기 전 아마 39년전 진각종시절에 언니의 권유로 인해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총지중이 창종된 후 원정법에서

▶처음 총지중에 입교하게 된 계기? 제가 총지중에 입교하게 된 것은 총지중이 창종되기 전 아마 39년전 진각종시절에 언니의 권유로 인해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총지중이 창종된 후 원정법에서

▶처음 총지중에 입교하게 된 계기? 제가 총지중에 입교하게 된 것은 총지중이 창종되기 전 아마 39년전 진각종시절에 언니의 권유로 인해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총지중이 창종된 후 원정법에서

▶처음 총지중에 입교하게 된 계기? 제가 총지중에 입교하게 된 것은 총지중이 창종되기 전 아마 39년전 진각종시절에 언니의 권유로 인해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총지중이 창종된 후 원정법에서

▶처음 총지중에 입교하게 된 계기? 제가 총지중에 입교하게 된 것은 총지중이 창종되기 전 아마 39년전 진각종시절에 언니의 권유로 인해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총지중이 창종된 후 원정법에서

▶처음 총지중에 입교하게 된 계기? 제가 총지중에 입교하게 된 것은 총지중이 창종되기 전 아마 39년전 진각종시절에 언니의 권유로 인해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총지중이 창종된 후 원정법에서

마음을 찾아주는 60가지 이야기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

글 방경일 · 그림 김장영 | 분량 260쪽
4×6 변형판 컬러인쇄 | 값 10,000원

선종(禪宗)의 탄생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60분 선사들의 삶이 여러분 곁에 다가옵니다!

"부처, 부처 하는데 도대체 부처가 뭐니까?"라는 제자의 물음에 어느 선사(禪師)는 "응, 그거 '마른 콩 막대기'야!"라고 했다.

세상에, 우주万물의 본성과 그 작용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고귀한 부처님이 겨우 콩 막대기라니!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망발이 아닐 수 없지만 선사들의 세계에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일러 준 정확한 대답'으로 통한다.

- 머리말 중에서 -

*수련회, 각종 법회 등 불교행사시 법보시나 법우들간의 선물용으로도 최고
*마음시리즈 1권과 함께 구입하시면 불교를 이해하는 데 더욱 좋습니다.

이 도리를 아느냐?
비서진 성 북서쪽의 대저택

가슴은 내게로 오라
눈에서 귀를 보라

어디 앉을 자리 있나?
홍색은 주께...
그리고 저 포학사니는 도 뭐야?
음- 가슴을 앞잡아 보구나

여기에 앉게!
부처님...

자네는 내 뒤를 이어 교단을 맡을 수제자이니 사양 말고 그러한 자리가 있네.
감사합니다...

쿠시나카라 북서쪽의 서마루야...
부처님의 열반에 늦게 온 가슴은 관우를 세 번 울고 세 번 절했다.
도 뭐지 이?

왕사성 동북쪽의 영취산
백년 법과 깨달음의 마음을 가슴에게 전하니 널리 퍼도록 하라!
배가

열려 마십시오, 스승님.
저지여, 뒷일을 잘 부탁하네!
깨!

어떤은 이 도리를 아느냐?
부처님!



사진으로 보는 종조 원정 기념관



천년의 잠을 자고 우리 앞에 나타난 밀교! 총지종!



소의경전 필름

밀교경전을 쉽게 구할 수 없었던 창종 당시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대승장엄보왕경》을 사진기로 촬영하여 번역에 활용하였다.



염주

종조께서 사용하셨던 염주, 시종수법에 맞게 백·황·흑색의 염주를 사용하셨다.

불교 총지종은 법신비로자 나불을 교주로 하고 육자대명을 본존으로 하여 대승장엄보왕경과 대승이취유비라 밀다경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태극양계의 모든 경계를 보조경전으로 하며 삼밀과 육행을 수행의 덕목으로 하고 '당상죽도', '색심불이'의 원리에 입각하여 복지쌍수로 시리를 구현함으로써 현세정화와 즉신성불의 운원대도를 얻게 하고 단순했던 과거와 복잡한 현대에 재생의세 하는 법이 다르므로 특히 이원진리를 밝혀서 물심병진법을 가르치는 한편 시시불공, 처처불공으로 생활시불법, 불법시생활의 진리를 체득케하는 동시에 활동하며 두고, 닦으면서 활동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는 방편을 세움으로서 교상이 확립되고 입교교의를 이에 두었다.



한문소의경전

종조께서 참고로 하셨던 한문으로 된 밀교경전이다. 《대승장엄보왕경》은 사진기로 촬영하여 현상한 것이고 《결밀원통선불심요집》은 대장경속의 한문경전 원문이다.

시초

종조께서는 증생교회를 위하여 불교와 일반상식 등 다방면에 걸쳐 관심을 가지셨다. 매사에 깊은 통찰력을 보이셨고 심득하신 것을 기록으로 남겨두셨다.



시종수법용 사색건

시종수법은 식재법, 증의법, 경애법, 항복법을 가리킨다.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창종과 함께 《결밀원통선불심요집》에 근거하여 밀교심요의 시종수법을 종단의 주요 수행법으로 정하셨다. 이 시종수법에 따라 의례를 행할 때 네 가지 색의 천을 덮고 각각의 결인을 하였다. 창종 당시에 사용되었던 이 사색건은 총기7년 10월 17일 제12회 중앙총회에서 법요의 간소화를 위하여 사용을 보류하였다.



정진일지

종조께서는 의례, 증무행정, 전당건설 등 모든 불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결과정진 및 동향을 참고로 하셨다. 정진결과와 동향을 일지형식으로 기록하셨다.

총지종 종조 원정 기념관 개관불사

천년의 잠을 자고 우리 앞에 나타난 밀교! 무언의 설법을 통하여 마음의 비밀을 깨달아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정통밀교의 숭고한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뜻을 기리는 원정기념관 개관불사를 사부대중을 모시고 봉행하고자 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 일 시 : 총기 33년 12월 2일 14 : 00
 - ◆ 장 소 : 불교 총지종 총지사 2층
 - ◆ 연락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전화 : (02) 552-1080

불교 총지종 통리원장 우 승 합장

